

개정 도교법 시행 첫날...“여전히 확하고 우회전”

‘갭 투자’로 전세보증금 사기 수백억대 가로챈 40대 잠적

북구 문흥동 교차로 기보니

‘일시정지’ 무시 위반 차량 여전
정차한 차량 뒤에선 수차례 경적
법규위반 기준 모호... 잇단 혼선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 날인 12일 오전 광주시 동구 충장로1가 입구에서 경찰관제자들이 계도활동 중 한 차량 운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했는데 뒷차가 빨리 가라고 오히려 경적을 울렸어요. 법규 위반 기준을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12일 광주 북구 문흥동 한 사거리.

이날 광주 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들은 횡단보도 진입 차량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 중심의 단속을 벌였다.

경찰들의 단속이 운전자들은 대체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준수했으나 개정된 법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 차량은 빨간 불이 켜진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없어도 3-4초간 정차하면서 경찰의 눈치를 살피는가 하면, 바로 뒤 회색 스타렉스 차량은 답답했는지 경적을 울리며 옆 차선으로 변경한 후 추월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여전히 우회전 하는 차량도 있었다.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하던 흰색 포터 차량은 경찰의 단속을 보고선 횡단보도 위에 급정거했지만 곧바로 단속 대상이 됐다.

이에 경찰은 운전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흰색 포터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키고 운전면허증을 확인한 뒤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의거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했다.

그 뒤로 5분 후 흰색 K3 차량이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다 경찰의 단속망에 걸렸다.

경찰은 마찬가지로 갓길에 정차 시키고 교통단속PDA를 꺼낸 후 법 위반 사항을 알려주면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 기간이 시작되지만, 이전부터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의무’ 조치는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도 활동과 함께 단속을 진행했다”면서 “여전히 교차로 내에서 보행자가 위협받는 상황이 많은 만큼 운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보행자가 ‘통

행하는 때’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피며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위반시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어린이보호구역은 2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다음달 1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면서 개정된 법에 대한 홍보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바뀐 도로교통법에 대해 운전자들은 위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운전자 박 모씨(31)는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애매하다”면서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사람이 건널지, 멈춰 있을지 잠시 사이에 어떻게 판단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정주 북부서 교통안전팀장은 “개정된 법은 사람이 손을 흔들거나, 뛰어오거나, 주위를 살피는 등 건너는 신호를 운전자가 확인할 의무가 있다. 신호 관계없이 보행자 확인이 핵심이다”면서 “개정된 법으로 인해 교통체증 등 혼선이 예상되므로 계도 기간 동안 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6월)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3,222건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총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민찬기 기자

갭투자 형태로 전세보증금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발된 40대가 잠적, 경찰이 검거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주택보증공사가 고발한 40대 A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매입해 투기하는 이른바 ‘갭 투자’ 형태로 200여 건에 걸쳐 수백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주택보증공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개별 피해를 보진 않았지만, 임차인 대신 보증을 서 사기 피해를 떠안게 된 공사 측이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가 갭 투자 형태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잠적한 A씨를 추적하고 있다. /최환준 기자

고속도로 추돌사고 수박 쏟아져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로 사고 차량에 실려 있던 수박이 도로로 쏟아지면서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1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남 오후 8시 40분께 영광군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영광 2터널 인근에서 25톤 트럭이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1톤 화물차가 옆에 있던 SUV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SUV 운전자와 동승자 3명도 경미한 부상으로 이송됐다.

사고 과정에서 1톤 화물차에 가득 실려있던 수박이 도로로 쏟아져 내려 하행선 전체가 통제됐다. 사고 현장 인근에 있던 운전자들이 직접 수박을 옮기는 등 수습에 나서 1시간여 만에 통행이 재개됐다. /임채민 기자

편의점 상습절도 30대 검거

아르바이트생 행세를 하며 편의점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편의점에서 잇따라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절도)로 A씨(34)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편의점 금고에서 현금 21만 5,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8일 정오께 서구 치평동 한 편의점에서 현금 14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동 주거지가 없는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혜란 기자

광주 기초단체장 성폭행 혐의 피소

광주시의 한 기초단체장이 과거에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2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가 기초단체장 B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8년 지방 선거 당시 한 후보의 캠프 관계자였던 B씨를 만나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당시 B씨에게 성폭행

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을 광주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A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사실무근”이라며 “정확한 고소 내용을 파악한 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5살 조카 폭행치사 40대 고모 ‘징역 7년’

훈육을 이유로 5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고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부는 1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밤과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장흥군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양육하던 조카 B양(5)을 유리창 닦이 막대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과 12월 B양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아이에 대한 훈육 및 체벌 한계를 넘은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최환준 기자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받는 기업

현대로오텍(주)

현대이엔티(주)

생산 및 품질인증시스템의 구축은 물론 **고품질, 고효율, 유지보수**에 편리한 제품 생산을 위해 임직원 모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완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가치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생산품 수배전반(고압반, 저압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등)	태양광EPC 태양광시공 및 분양, ESS, 전기공사, 유지보수
현대일렉트릭 특약점 비상발전기, 변압기, 모터, 차단기, 태양광PCS	변전소네티킹공사 154/345kV S/S 공급 시공, 시스템설계, PM

■ 154kV 해남변전소

■ 태양광발전소-PV+ESS

■ 건물, 지붕 태양광

■ 몰드변압기

■ 배전반

■ 주전선실 배전반

대표이사 노정규
 C.P 010-3573-1323
 Homepage <http://rotech.kr>
 E-mail rotech@rotech.kr

광주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연신로 340 (연제동) 현대로오텍(주)
 TEL : (062) 972-4491 FAX : (062) 972-8863
 목포공장: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불3길 14 (난전리) 현대이엔티(주)